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빛 되신 주 / 우리 주를 만나고 / 끝까지 주신 믿음 안에서 /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회개	다같이
대표기도		이환
*성경봉독	삼상 16:13, 23:14, 26-29	허영진
말씀	다윗 - 기름부음과 광야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광야를 지나며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조학영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왜 나를 깊은 어둠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낫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경계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으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윗 - 기름부음과 광야 (삼상 16:13, 23:14, 26-29)

16: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23: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26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 전력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쉐라하마드스곳이라 칭하니라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약 한달동안 우리는 다윗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몇 장면을 뽑아서 목상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장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후에 광야에서 약 10여년을 지낸 장면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평범한 가정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적 포텐셜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의 마음이 있으며,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었고, 얼마 후 블레셋과의 전투에 우연히 참가하였다가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면 이 사건이 그를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다윗을 광야학교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전에 반드시 광야학교를 거처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생활을 통해 다윗은 그저 포텐셜이 있는 한 젊은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국가급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뿐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전에 광야시간을 보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함께 목상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광야는 이전 삶과 철저히 단절되어 전혀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해된 시간은 없지만 인격과 습관을 형성할 정도의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의식주와 생존의 심각한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데려다 갑자기 광야 한 가운데에 툇 던져 넣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광야학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의 인격과 영성을 리더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광야는 리더의 인품, 사람됨, 리더십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광야처럼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광야는 낮아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적인 모든 자량은 다 사라집니다. 그는 마치 맨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갖게 되면 심중팔구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자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시간동안 다윗 주변에는 상처받고 모함받은 억울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또한, 광야는 인내를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광야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광야를 거쳤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덕목을 배우지 못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급함이 결국 그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만듭니다. (삼상13:13-14) 다윗은 광야생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성급함으로 일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산책

둘째,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광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one of them'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야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위를 탐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학교는 이 점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은 나의 슬픔을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입니다. 이는 평소에는 좀처럼 배우기 힘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무테와 같이 고난과 슬픔을 통해 단단해 진 영성은 웬만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성이 됩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 축복입니다.

광야는 우리 영혼을 성숙시키는 최고의 학교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뒤의 가나안에 집중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올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주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학교를 통과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목상 질문

1. 영적 리더가 되는 데 광야학교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였는데, 가장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요?
2. 여러분이 경험한 광야의 삶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배우신 부분을 함께 나눠주세요.
3. 광야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광야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수련회 신청 QR

2024년 청년부 수련회

- 기간 : 2024년 3월 8일~10일
- 장소 : Mo-Ranch (2229 FM 1340, Hunt, Texas 78024)
- 강사 : 손상원 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신약학 교수)
- 회비 : 140불 (조기등록할인 : 110불, 학생조기등록: 100불, 조기등록: 2/11까지)

찬양의 밤

- 일시: 1/26 (금) 저녁 7시
- 장소: 청년부실

전교인 신약 통독

- 매일 3장씩 신약통독
- 이번주는 누가복음 12장 ~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재정부

- 2023년 현금 내역을 원하시는 경우 재정부 신청서에 기입
-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m@yahoo.com)

1:1 동반자 모집

- 신청 :로비 부스

2024년 신입 서리 집사 임명

- 김보배, 김태동, 양병덕, 전승엽, 정재인

임명

- 청년부 부간사 : 최송석/백유선 집사

주일 3부 예배 신설 및 예배시간 변경

- 2024년 3월 3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면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 1부 : 8시, 2부:10시, 3부:12시
- EM : 10시, 다음세대 : 10시, 청년부 : 오후 2시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